

일부지역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처

심형순 · 이향님

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Stress and coping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Hyung-Soon Shim · Hyang-Nim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wangju Health College

Received : 8 January, 2014

Revised : 11 March, 2014

Accepted : 3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Hyung-Soon Sh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wangju Health College, 73

Bukmun-daero 419

Gwangsan-gu, Gwangju, 506-701, Korea.

Tel : + 82-62-958-7636

+ 82-10-8603-3142

Fax : +82-62-958-7631

E-mail : shshim@ghu.ac.kr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reduction and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The subjects were 354 dental hygiene students in Gwangju and Jeonnam.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from June 3 to 21, 2013. The questionnaire included stress management in the clinical practice.

Results : As for clinical practice stress, there was a significant relevance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and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had a significant relevance to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Conclusions : In order to reduce clinical practice stress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o enha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clinical practice stress management program and to develop the appropriate measurement tool for stress.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색인 :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치위생과

서론

치위생(학)과는 전문직 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치위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다.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중에 임상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치과임상에서 실제로 수행해 보는 과정으로 치위생(학)과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¹⁾. 임상실습은 치과위생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임상적인 지식, 기술, 태도와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시켜 통합적인 사고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을 통하여 치과위생사 역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며 나아가서 임상실습

에 대해 흥미와 자부심 및 만족감을 갖고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임상실습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이렇듯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실습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에서 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해 회의적이며 부정적이다²⁾. 그 이유로는 이론과 실습과의 차이로 인한 혼돈, 비교육적인 실습환경, 대인관계에서의 경험부족, 단순한 실무의 반복, 전문지식의 부족 및 자신감 결여 등으로 실습 중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 두려움, 불안, 피로, 분노 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이론적 확립이 완성되기 전에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현행 교육제도 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실습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3,4)}.

임상실습 스트레스란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으로써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²⁾. 스트레스는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정서적 스트레스의 기능을 하여 건강악화 행동을 유발하며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⁵⁾. 하지만 개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정신건강에 공헌하고,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 그리고 직무업적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⁶⁾.

Lazarus와 Folkman⁷⁾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대처방식이라고 하였다. 스트레스를 대처해가는 방식은 인간이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방식과 심리적 갈등을 신체질환으로 표현하려는 양상에 많은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임상실습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파악하여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실습을 마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2013년 6월 3일~2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397부를 배부하여 375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21부를 제외한 354부를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도구

2.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에게 일반적인 특성으로 출신고, 거주상태, 대인관계, 건강상태, 성적장학금 수령여부, 전공 만족도, 최근 실습기관, 진학 이유, 임상실습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2.2.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황⁸⁾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문항을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환경 요인 7문항, 대인관계 7문항, 역할 및 활동 10문항, 이상과 가치 6문항, 진료분야 10문항 등 총 40문항이다. '매우 그렇다'에는 5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환경 요인은 0.771, 대인관계는 0.757, 역할 및 활동은 0.807, 이상과 가치는 0.835, 진료분야별 스트레스는 0.891로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2.3.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Lazarus와 Folkman⁷⁾이 개발한 도구를 김⁹⁾이 요인·분석하여 선택하여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에는 5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0.657로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3. 통계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는 통계분석 패키지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처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시행하고,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4)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출신 고등학교는 일반계가 71.8%로 가장 많았고, 산업계가 27.7%, 기타가 0.6%였다. 거주 형태로는 '부모님과 함께' 44.4%로 가장 많았고, '자취하는 경우'가 39.5%, '기숙사'가 14.1%, '친척택'이 2.0%였다. 대인관계는 '그저 그렇다'가 49.2%, '좋다'가 47.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54

Variable	Division	N	%
High school	General	254	71.8
	Industrial	98	27.7
	Others	2	0.6
Residence type	Parents' house	157	44.4
	Alone	140	39.5
	Relative's house	7	2.0
	School boarding house	50	14.1
	Not good	2	0.6
Personal relations	So so	174	49.2
	Good	169	47.7
	Don't know	9	2.5
	Not good	14	4.0
Health conditions	So so	165	46.6
	Good	175	49.4
	Don't know	220	62.1
	Not good	26	7.3
Scholarship for good grade	Yes	113	31.9
	No	21	5.9
	Not good	26	7.3
Satisfaction of major	So so	225	63.6
	Good	103	29.1
	Don't know	26	7.3
Last practice institutions	Dental hospital	88	24.9
	Dental office	266	75.1
	School records	15	4.2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s	146	41.2
Motive of department choice	Employment	173	48.9
	Aptitude	18	5.1
	Others	2	0.6
	Not good	25	7.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o so	214	60.5
	Good	115	32.5

‘모르겠다’가 2.5%, ‘좋지 않다’가 0.6%였으며, 건강상태는 ‘좋다’가 49.4%, ‘그저 그렇다’가 46.6%, ‘좋지 않다’가 4.0%였다. 성적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31.9%였고, 전공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가 63.6%, ‘만족’이 29.1%, ‘불만족’이 7.3%였다. 가장 최근의 임상실습기관은 ‘치과병원’이 24.9%, ‘치과의원’이 75.1%였으며, 학과선택이유는 ‘취업’이 48.9%로 가장 높았고, ‘아는 사람의 추천’이 41.2%, ‘적성’이 5.1%, ‘학교 성적’이 4.2%,

기타 0.6%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0.5%, ‘만족 한다’가 32.5%, ‘불만족’이 7.1%였다.

2. 임상실습 시 영역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영역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환경요인에서의 스트레스는 3.06 ± 0.72 로 가장 높았고, 이상과 가치요인은

Table 2. Stress and coping according to the fields

Division	Mean $\pm$ SD
Stress on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al factor	3.06 ± 0.72
Personal relation	2.39 ± 0.74
Role and activity	2.82 ± 0.68
Ideal and worth	3.04 ± 0.77
Treatment field	2.62 ± 0.79
Stress coping	2.95 ± 0.34

Table 3. Meaning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inical practice stress		Cope with stress	
		Mean±SD	p	Mean±SD	p
High school	General	2.77±0.57	0.653	2.96±0.34	0.598
	Industrial	2.83±0.60		2.93±0.34	
	Others	2.78±0.36		3.07±0.03	
Residence type	Parents' house	2.67±0.58	0.003**	2.96±0.34	0.870
	Alone	2.93±0.56		2.93±0.35	
	relative's house	2.82±0.39		2.91±0.23	
	school boarding house	2.75±0.57		2.96±0.32	
	Not good	2.72±0.19		3.05±0.67	
Personal relations	So so	2.80±0.60	0.480	2.91±0.34	0.085
	Good	2.76±0.57		3.00±0.33	
	Don't know	3.05±0.57		2.89±0.31	
Health conditions	Not good	3.20±0.43 ^a	0.002**	3.11±0.29	0.209
	So so	2.84±0.57 ^{ab}		2.93±0.33	
	Good	2.70±0.58 ^b		2.95±0.35	
Scholarship for good grade	Don't know	2.78±0.56	0.427	2.94±0.32	0.687
	Yes	2.83±0.52		2.97±0.37	
	No	2.63±0.55		2.96±0.38	
Satisfaction of major	Not good	3.06±0.55 ^a	0.015***	2.93±0.34	0.169
	So so	2.80±0.60 ^{ab}		2.93±0.34	
	Good	2.70±0.53 ^b		3.00±0.33	
Last practice institutions	Don't know	2.90±0.53	0.056	3.00±0.33	0.137
	Dental office	2.75±0.59		2.94±0.34	
	School records	2.79±0.43		2.98±0.23	
Motive of department choice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s	2.79±0.61	0.620	2.95±0.33	0.578
	Employment	2.80±0.55		2.94±0.34	
	Aptitude	2.62±0.65		2.98±0.45	
	Others	3.18±0.84		3.33±0.54	

* p<0.001, ** p<0.01, *** p<0.05

+ Analysed by the one-way ANOVA

++a,b,c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at $\alpha=0.05$

3.04±0.77, 역할 및 활동요인은 2.82±0.68였고, 진료분야는 2.62±0.79였고, 가장 낮았던 것은 대인관계요인으로 2.39±0.74였다. 스트레스 대처는 2.95±0.34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분포

치위생(학)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분포는 <Table 3>과 같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거주형태별로 자취하는 경우에서 2.93±0.56으로 가장 높았고, '친척집'인 경우에서 2.82±0.39, '학교 기숙사'인 경우에서 2.75±0.57, '부모님과 함께' 2.67±0.58로 가장 낮았으며(p<0.01),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서 3.20±0.43으로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에서 2.84±0.57, ' 좋음'에서 2.70±0.58로 가장 낮았다(p<0.01). 전공 만족도가 '불만족'에서 3.06±0.55로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에서 2.80±0.60, '만족'에서 2.70±0.53으로 가장 낮았으

며(p<0.05)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출신 고등학교와 대인관계, 성적장학금 수령, 최근 실습지, 학과선택 이유에 따라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출신 고등학교, 거주형태, 대인관계, 건강상태, 성적장학금 수령여부, 전공만족도, 최근 실습지, 학과 선택 이유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 만족도(r=0.318)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 만족도(r=-0.143)와 임상실습 만족도(r=-0.259)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ping

Variables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Satisfaction of major	1.00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0.318 ^{***}	1.000		
Clinical practice stress	-0.143 ^{**}	-0.259 ^{***}	1.000	
Coping	0.088	0.148 ^{**}	0.127 [*]	1.000

Analysed by correlation coefficients

*** p<0.001, ** p<0.01, * p<0.05

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임상실습 만족도($r=0.148$)와 임상실습 스트레스($r=0.127$)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 및 고안

치위생(학)과 임상실습은 정규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써 습득한 이론적인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게 하여 치위생(학)과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면의 변화를 가져와 후일 정규 치과위생사로 근무할 때 치과위생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¹⁰⁾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이므로 치위생(학)과 교육에 있어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¹¹⁾.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졸업 후 실제로 근무하게 될 현장을 이해하고 체험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며 이론으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의 현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발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관계의 경험부족과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안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여 학업상담 및 임상실습 교육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치위생(학)과 교육의 실무지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출신고등학교는 일반계가 71.8%로 가장 많았고, 거주 형태로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는 보통이상이 97.1%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건강상태도 보통이상이 96.0%로 건강한 상태였다.

치위생(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이 48.9%로 가장 높았고, 아는 사람의 추천이 41.2%로 나타났으며 장과 김¹²⁾, 이¹³⁾, 박¹⁴⁾의 직업 및 취업이 69.0%, 주변의 권유가 18.6%로 일치하

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만족한다가 92.7%로 1995년 장¹⁵⁾의 72.6%, 2000년 심¹⁰⁾의 76.1%, 2006년 박¹⁴⁾의 84.8%의 연구결과로 해가 거듭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 때문에 학과를 선택하는 이유가 높아지고 있는 결과와 연관성이 있어서 장래 직업이나 취업에 대한 보장이 치위생(학)과 선택 동기의 주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전공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21세기 취업난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이상이 93.0%로 김¹⁷⁾은 보통이상이 84.3%, 박¹⁴⁾은 보통이 45.9%, 만족 27.9%, 매우불만족 5.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비교적 임상실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실습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일부 병(의)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1996년 이¹⁸⁾의 연구에서는 만족이 16.9%, 2000년에 조사한 양¹⁹⁾의 연구에서는 만족 17.5%, 보통 32.3%, 불만족 50.2%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실습학생에 대한 인식부족, 선배치과위생사의 관계 미숙, 학생 자신의 역할이 모호한 점과 전문적 기술 부족과 단순한 기능적인 일반 반복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보고하였다¹⁵⁾. 그래서 대학마다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임상실습 전과 임상실습 중에 임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자신있게 임상실습을 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표준화된 실습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실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영역별 스트레스는 환경요인에서의 스트레스는 3.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상과 가치요인은 3.04점, 역할 및 활동요인은 2.82점이었고, 진료 분야는 2.62점, 대인관계요인이 2.39점 순으로 다른 보건직종을 대상으로 한 전¹¹⁾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¹⁷⁾은 이상과 가치영역에서 3.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역할과 활동영역이 3.12점, 박¹⁴⁾은 이상과 가치영역이 3.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

스가 환경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치위생(학) 학생들이 익숙한 학교라는 환경에서 조직체제나 분위기 등의 모든 상황이 친숙하지 못하고 생소한 임상에서 임상실습을 하게 되면서 긴장감이 유발되어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임상실습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힘들게 느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실습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과 전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임상실습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신체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신체증상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임상실습 과정 중 느끼는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고 학과에 흥미를 잃는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명확한 스트레스 관련요인과 학생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⁰⁾.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신체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²¹⁾.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수준은 2.9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백²²⁾의 3.17점보다 약간 낮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보다 자취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전공에 만족한 경우보다 불만족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나,

건강과 대인관계가 나쁘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적절한 중재가 없는 경우 의욕상실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며 궁극에는 치과위생사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입학초기부터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³⁾.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2.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3.11점으로 높았고, 전공 만족도에서 만족한다가 3.00점으로 만족하지 못한 경우 2.9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과 선택을 적성이라고 한 경우가 2.95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거주형태별, 건강상태와 전공 만족도, 학과 선택 이유와 유의한 차이는 없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학)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상황을 파악하기에 유의하게 나온 변수가 없는 관계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맞는 스트레스 대처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서 홍²¹⁾과 일치하였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임상실습 만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홍²¹⁾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서 2005년 장과 송²⁴⁾, 2007년 박과 이²⁵⁾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임상현장에서 경험해보려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어있고 이론적 지식도 풍부하여 임상실습을 통하여 더욱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 만족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므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광주와 전남지역에 있는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한 분석이므로 대상자의 개인 성향과 응답태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 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임상실습시작 초기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치위생과 학생을 위한 심리변화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교외 임상실습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실시하였다. 광주·전남지역 치위생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54부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영역별 스트레스는 환경요인 스트레스는 3.06 ± 0.72 로 가장 높았고, 이상과 가치요인은 3.04 ± 0.77 , 역할 및 활동요인은 2.82 ± 0.68 이었고, 진료분야는 2.62 ± 0.79 였고, 가장 낮았던 것은 대인관계요인으로 2.39 ± 0.74 였다. 스트레스 대처는 2.95 ± 0.34 였다.
2.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거주형태별로 자취하는 경우에서 2.93 ± 0.56 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서 3.20 ± 0.43 으로 가장 높았다($p < 0.01$). 전공 만족도가 불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에서 3.06 ± 0.55 로 가장 높았다 ($p < 0.01$).

3.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출신 고등학교, 거주형태, 대인관계, 건강상태, 성적장학금 수령여부, 전공만족도, 최근 실습지, 학과 선택 이유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 만족도($r = -0.143$)와 임상실습 만족도($r = -0.259$)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임상실습 만족도($r = 0.148$)와 임상실습 스트레스($r = 0.127$)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치과환경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Mackie JB. Comparison of student satisfaction with education experience in two teaching process model. *Nursing Research* 1973; 22(3): 262-6.
2.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06; 12(2): 205-13.
3. Ko SH, Kim KM. A study on firs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Nurse* 1994; 33(2): 9-17.
4. Park MY, Kim SE. A study on firs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0; 6(1): 23-35.
5. Lee JH. Effect of stress and coping on body perception. *Kor J Psychol Health* 1999; 4(1): 80-93.
6. Schnake ME. *Human Relations*. Merrill Publisher; 1990.
7.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84.
8. Hwang SH. A study on the stressors experienced during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Master's Thesis]. Univ. of Dankook, 2004.
9. Kim JH. Relation of perceived stress, cognitive set, and coping behaviors to depression[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Seoul National, 1987.
10. O GS. Process of the Nursing Education in Clinic. *J Korean Acad of Nurs* 1974; 13(6): 47-55.
11. Jen HY. An analytical study on stressor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Master's Thesis]. Univ. of Yonsei University, 1984.
12. Jang JH, Kim GH. A study on the achievement motiv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Research Bulletin of Chung-ang J of Nursing* 2000; 4(1): 175-93.
13. Lee C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ditions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clinical training of dental hygiene students. *The Research Bulletin of Dong-nam J of Health* 2002; 20(1): 93-100.
14. Park MY.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 of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06; 14(4): 243-9.
15. Jang GW.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The Research Bulletin of Chinju J of Nursing & Health* 1995; 18(1): 203-21.
16. Shim HS. The status of clinical practice by dental hygiene students at Gwangju-Chonnam area colleges[Master's Thesis]. Univ. of Chosun, 2001.
17. Kim YN. A study on the stress factor of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he Research Bulletin of Kyung-bok J* 2000; 4: 373-91.
18. Lee YE. A study on causes of stress experienced by party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during clinical training. *J Dent monthly publication*; 1996.
19. Yang JS.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ospital by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0; 24(3): 205-13.
20. Chun JY, Lee HO, Kim J. The effect of self-expression on stress with clinical dental practice among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07; 7(2): 89-96.
21. Hong SM, Han JH, Kim HK, Ahn YS. A study on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and somatiz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09; 9(2): 219-24.
22. Baek CM. A study on the stress according to clinical training in department of radiolog[Master's Thesis]. Univ. of Hanseo, 2002.
23. Park HG, Jang IS.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0; 16(1): 14-21.
24. Chang BJ, Song KH.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05; 11(1): 81-90.
25. Park IS, Lee SH.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 duties. *J Dent Hyg Sci* 2007; 7(4): 295-302.

